

# IMF 시대와 제주교육의 방향

박 태 수

## 1. IMF와 사회 변화

지금 우리 사회는 21세기를 눈 앞에 두고 IMF와 사회 변화로 인해 수 많은 시련을 겪고 있다. 그러면서도 과거와는 다른 새로운 각오로 이 시대를 극복하고자 의지를 불태우고 있다. IMF와 새로운 사회로의 변화는 우리에게 어떠한 시사를 주는가?

IMF로 인해 나타난 새로운 가치 중 하나는 “우리”라는 개념의 변화이다. 이제 직장과 나는 더 이상 “우리”가 아니라는 변화가 서서히 내 곁으로 다가오고 있다. 학교가 나에게 평생 직장을 보장해 줄 이유가 없으며, 따라서 나도 평생 학교만을 위해 충실할 필요가 없어진다. 내가 살아남기 위해 남을 딛고 올라서야만 하며, 학교내에서도 동료애가 사라지며, 학교를 위해 함께 노력하는 모습도 찾아보기 힘들게 될 것이다(신현암, 1998).

IMF시대를 맞은 다른 변화는 대학 부설 사회·평생교육원이 큰 인기를 모으고 있다는 점이다. 취업 교육, 자기 개발 교육, 그리고 취미 생활 등 다양한 강좌로 주부와 학생, 그리고 직업 전환 희망자들의 발길이 늘어나고 있다. 이들 교육원이 이처럼 높은 관심의 대상이 되는 이유는 IMF가 가져다 준 실직과 이로 인해 남는 시간을 생애재설계를 위한 기회의 발판으로 삼고자 함이다. 또한 변화의 시대에 대응할 수 있는 사회교육은 대부분 강좌가 성별, 연령, 학력 등에 제한 없

이 원하는 모든 사람에게 개방되어 열린교육이라는 점이다.

한편, 기업체에서는 기업의 글로벌 스탠더드(Global Standard) 조건을 강조하고 있다. 기업 차원에서 글로벌 스탠더드란 한 기업의 경영 내용을 전 세계인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고 신뢰할 수 있도록 기업의 구조, 전략, 경쟁력을 혁신해 나가는 것을 의미하며, 가치중심적이고, 세계적 수준의 핵심역량을 가지며, 합리적 사업영역과 투명한 경영체제 구축, 개방적 기업문화, 환경변화에 대처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통해 IMF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는 것이다(포스코 신문, 1998. 9. 3).

이처럼 IMF와 더불어 정보화·세계화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개인 및 국가 발전의 근본적 원리가 달라지고 있는 것이다. 정보화·세계화 시대는 국민이 보유한 지식·정보의 양과 질이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 발전의 원동력이 될 것이며, 교통·통신의 눈부신 발달로 인하여 세계가 하나의 생활권이 됨으로써, 무한 경쟁의 시대를 예고한다. 이에 따라 모든 국가들은 하나의 경제체제 속에서 생존하기 위한 전략 수립에 고심하고 있다. 실제로 우리가 겪고 있는 IMF체제의 어려움도 새로운 시대가 요구하는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 결과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미 오래 전부터 선진국들은 ‘정보화·세계화’로 일컬어지는 새로운 사회에서의 생존에 필요한 전략적 차원으로 교육개혁을 서둘러 왔다. 새로운 사회는 끊임없는 지식·정보의 창출을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요구에 부응하여 선진국들은 창의적인 인간을 기르기 위해 국가의 총력을 기울여 교육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과학·기술의 발달로 미루어 볼 때, 미래사회를 예측한다는 것은 사실 매우 불확실할 수 밖에 없다. 다만 미래사회는 급격한 변화를 특징으로 하며, 이러한 급격한 변화는 지식의 수명이 점점 더 단축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새로운 지식의 창출이

끊임없이 요구될 것이라는 점을 예견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많은 미래학자들이 21세기 미래사회를 ‘정보화 사회’라고 말하기도 하고 ‘창조화 사회’라고 일컫기도 한다. 미래사회는 정보화의 단계를 넘어 창조화로 이행되어 치열한 창조적 두뇌를 통해 아이디어로 경쟁할 수 밖에 없는 사회이다. 이러한 사회에서는 국가 단위의 장벽이 무너지고 세계가 하나의 경제체제가 됨으로써 국가 단위의 국제 경쟁이 아닌 조직 대 조직, 기업 대 기업, 사람 대 사람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사회에서의 국가는 교육을 통해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교육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임동권, 1998).

최근 교육부와 일부 대학들이 가위 혁명적이라고 할 만한 교육 개혁 정책 및 방안들을 계속 발표하고 있다. ‘인기 학과 폐지’, ‘1백% 무시험제’, ‘예약입학제’ 등이 그 예다. 그 동안 우리 나라의 입시 과열은 수 많은 정책들이 실패해 왔기 때문에 도저히 치유할 방법이 없는 불치병처럼 여겨져 왔다. 따라서 혁명적인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에서 국민들은 ‘사교육비 절감’과 ‘고교교육 정상화’라는 힘겨운 과제를 동시에 해결하려고 하는 교육부의 의지에 기대를 걸고 있다. 한 세기를 지나 다음 세기로 넘어가야 하는 지금의 시점이 IMF 위기와 정보화 사회로의 변화가 겹쳐 우리에게서 더욱 위기로 다가오고 있는 것이다.

## 2. 교육에서의 위기 상황

지금 우리는 산업 사회에서 지식·정보화 사회로의 시대적 변화와 우리 교육이 안고 있는 누적된 문제점들로 인해서 교육부문에 대한 개혁이 그 어느 때보다도 강하게 요청되고 있다. 입시 부담으로 인해

과외는 일반적인 사회현상이 되었으며, 결과적으로 각 가계에서는 과중한 사교육비 지출이 불가피해졌고, 학교에서는 다양한 교육 활동이 제한되고 인성 교육이 실종됐으며, 또한 국가적으로는 교육에 대한 왜곡된 중복투자와 질 저하를 초래했다.

다행히 지금의 중학 3학년 학생이 대학에 들어가는 2002년부터는 대학의 정원이 고교생 수를 초과하며, 전국의 중요 대학들이 무시험 전형형을 통해 신입생을 선발하게 될 전망이다. 각 대학이 무시험 전형의 기준을 아직 발표하지 않고 있으나, 학생의 교과 활동 상황뿐만 아니라 학교·학급 활동에서의 지도력, 클럽·단체 활동, 봉사 활동 등 학생이 고교 3년간 활동한 모든 자료가 대입 전형 자료로 활용될 것이다. 이는 실로 대학의 획기적인 전환을 의미한다. 이로써 학교교육을 정상화시키고 바람직한 학교 문화를 형성할 수 있는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앞으로 우리의 경제나 재정은 더욱 악화될 것으로 전망되며, 이에 따른 교육재정 또한 어려움이 예상된다. 세수 감소로 인한 국고지원과 시·전입금이 격감되고 있어 금년말에는 교원 봉급마저 걱정해야 할 지경에 이르고 있으며, 교육시설과 환경투자가 전면 중단 사태에 이르렀기 때문에 신학년도에는 학생수용에도 커다란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 사교육비 절감과 관련하여 교육개혁위원회나 교육부에서 사교육비의 과다 지출을 문제로 삼고 있지만 이는 사교육이 공교육과 함수 관계에 있기 때문에 자칫 문제의 핵심을 사교육에 있는 것처럼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다. 사교육은 공교육의 움직임에 따라서 “기생하는” 속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의 주체가 되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교육을 문제의 중심에 놓는 것은 오히려 문제의 핵심을 비껴가서 원인과 결과의 불일치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 공교육은 각급 학교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교육부, 입시 제도,

교육과정 편찬 기관과 전문가 모두가 공교육체제 안에 포함되어 있다. 공교육이 왜곡되고 제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니까 사교육이 기승을 부리는 것이다. 문제는 공교육 쪽이며, 사교육은 지엽적이어서 일종의 희생양 현상으로 볼 수 밖에 없다.

이러한 경제 위기 이외에도 청소년들의 비행은 위기적인 상황을 더 어렵게 하고 있다. 성적의 갑작스런 하락. 부모의 이혼이나 예기치 않았던 불화, 상급학교 불합격, 학교에서의 집단 따돌림이나 폭력등은 자주 발생하는 우리 교육의 위기적 위험요소들이다.

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위기 상황으로는 부부간의 이혼으로 인한 가정 파괴와 가족의 갑작스런 죽음이나 행방불명과 같은 것이 대표적이다. 우리 나라는 최근 이혼의 증가로 인해 부모가 이혼한 가정의 학생이 한 학급에서 한 두명 혹은 그 이상이 된다. 부모의 이혼 이후에 그 자녀는 심리적 어려움, 즉 정서적으로 심한 좌절, 갈등. 죄책감, 환멸, 분노, 미움 등을 겪으며 개인에 따라서 그런 상태가 아주 오래 지속되기도 한다. 그래서 부모가 이혼한 아동이나 청소년들은 이러한 심리적 갈등을 극복하지 못하고 비행을 저지르게 된다. 그러나 학교는 이들을 위한 적응교육 프로그램이나 심리 상담 프로그램 등을 제대로 실시하지 못하고 있어서 이혼의 증가에 따른 대책이 미흡한 실정이다.

한편, 학교에서는 일부 학생들이 집단 따돌림이나 선배 또는 급우로부터의 폭력이 자주 일어나고 있는데, 이들이 선배나 급우로부터 지속적인 폭행을 당하다가 그것이 원인이 되어 자살을 하는 사건도 종종 일어난다. 그리고 이런 폭력 방어나 해결을 목적으로 하는 청소년 시설 등 민간 단체나 정부기관이 예전보다는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으나 비행의 감소는 쉽사리 일어나지 않고 있다. 모르긴 해도 IMF 시대가 지속된다면 우리 사회는 청소년 문제와 겹쳐서 더욱 혼란스러

워 질 것으로 예상된다.

### 3. 위기 극복을 위한 교육적 노력

교육계에도 예외 없이 불어닥친 IMF한파를 극복하기 위해 각급 학교와 일선교육청이 허리띠를 바짝 졸라매고 예산 절감에 온 힘을 기울이고 있다. 일선 학교와 교육청은 에너지 절약, 공사비 절감, 폐교 기자재 재활용등 기존 예산절감책의 강도를 높여 할 수 있는 데까지 예산을 절감하는가 하면 학교운영비 소요 시점을 면밀히 파악하여 대기 자금을 고수익 금융 상품에 예치해 가외 수입을 올리는 등 IMF시대의 새로운 학교경영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대부분의 학교들이 이 같은 교육책을 쓰게 된 것은 학교 운영비 예산이 지난해보다 10%가량 감액됐을 뿐만 아니라 공공요금과 각종 소요 물품의 가격이 인상돼 긴축운영이 불가피한 상황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실제로 에너지 사용이 많은 실업계 A고교의 경우 숙직자가 전기, 수도, 가스의 계량기를 매일 검침해 불필요한 사용을 억제함으로써 지난 6개월간 560여만원의 공공요금을 절약했던 사례가 있다.

서울 덕수초등학교는 IMF 이전보다 오히려 방과후에 활기를 띠고 있다. 태권과 수영 등 방과 후 교육 활동이 학생 학부모들의 큰 호응 속에 우리 교육의 새로운 흐름으로 자리잡고 있다. 학교에 다양한 수준별 프로그램이 개설되어 있기 때문에 학생들은 자신의 소질과 적성을 살릴 수 있고, 학부모들은 학원 과외보다 수강료가 저렴하면서도 오히려 강사의 질은 더욱 우수한 방과 후 교육 활동을 선호하고 있다. 이처럼 저렴한 수강료로 초등학생들이 지출하는 비용은 시중 학원을 수강하는데 드는 비용의 3분의1 수준에 불과하다.

교육부는 방과후 교육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1천여억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교육청별로 컴퓨터, 예능, 바둑, 체육 등 학생들의 재능과 특기를 살릴 수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강사풀체를 운영할 방침이다. 일선 학교들은 자체적으로 소속 교사를 활용하거나 외부 강사를 초빙해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방과 후 교육을 할 수 있고 마땅한 교재나 강사를 구하지 못하면 강사풀체를 이용할 수도 있다. 또한 보충수업이 단계적으로 폐지돼 내년에는 중학교 전학년과 고등학교 1학년, 2001년에는 고교 전학년까지 보충 수업과 타율적인 자율 학습이 완전히 없어진다. 그리고 현재 중학교 3학년이 대학에 들어가는 2002년부터는 무시험전형 등 대입 제도가 획기적으로 바뀔 것이기 때문에 이들이 고교에 진학하는 99년은 새로운 학교 문화를 창조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일련의 위기 대처 노력과 더불어 교육부는 세계 주요 선진국들의 교육 개혁의 핵심적 내용들을 포괄하여 교육 개혁의 기본 방향을 설정하고 이를 추진하고 있다. 즉, 수요자 중심의 교육, 선택의 폭이 넓은 다양한 교육, 저비용 고효율의 교육, 사교육비 절감, 투명하고 신뢰받는 교육행정 교육자치의 정착, 지역사회 속의 학교, 일선의 능동적인 노력 지원 등 일선학교 개혁을 위해 추진하고 있다. 이와 같은 학교 교육에 대한 개혁의 방향은 IMF 위기를 극복하고, 정보화 시대의 변화를 대비하는데 초점이 주어지고 있다.

#### 4. IMF 시대에 대비하는 제주교육의 방향

현재 21세기를 앞두고 전개되고 있는 새로운 사회체제는 우리에게 많은 변화를 요구하고 있는데, 이러한 변화의 요구는 교육분야에서 더욱 크다. 왜냐 하면 새로운 사회체제는 새로운 인간형을 통해서 구하고 있으며, 새로운 인간형은 교육을 통해서 길러 낼 수 있기 때문

이다. 최근 각 대학이 2002학년도부터 대학입시제도를 무시험 전형제도로 개선하고자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즉 우리나라 교육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던 가장 큰 장애요소를 제거함으로써 새로운 사회가 요구하는 인간을 기르기 위한 교육체제를 구축하자는 것이다.

학교 교육개혁의 성공을 위해서는 1차적으로 학교와 교원에 대한 신뢰성을 회복해야만 한다. 교육개혁의 방향은 학교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해 주되 그 자율에 따른 책임을 묻는 것이 중요하다. 최근 교육자치제의 확립과 더불어 단위학교의 학교장 중심 책임경영체를 강화하고 있다. 교육과정에서는 시·도 교육청의 선택권 확대 및 단위학교와 학생 선택권 확대를 강화하는 골격으로 7차 교육과정을 개편하였으며, 학교 예산도 도급 경비로 운영하여 학교 실정에 적합한 교육 활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하였다. 따라서 제주교육은 이런 점을 감안해 1) 다양성과 창의성이 존중되는 교육, 2) 인간다운 인간을 기르는 교육, 3) 교사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 4) 학교교육의 자율성과 합리성, 5) 학교운영에 대한 과학적인 검증의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 1) 다양성과 창의성이 존중되는 교육

지금껏 우리의 학교는 교사와 학생 모두 입시제도에 압도 되어 그것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모든 학생들에게 똑같은 문제가 주어지고 하나 밖에 없는 정답을 요구하는 획일적 문화가 학교에 만연되어 왔다. 단편적인 많은 지식들을 암기해야 하고, 학생의 소질과 자치활동, 체험활동 보다는 주지교과 중심의 입시공부를 해왔다. 학부모 역시 자녀의 전인적인 발달보다는 일류 대학에 더 큰 관심을 가짐으로써 학교교육이 대학입시 위주로 진행되기를 강력히 요구하여 왔다. 사실 오늘날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사교육

비의 증가, 치맛바람 등도 생각해 보면 이와 같은 입시 위주 교육문화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학교에 관한 이와 같은 관점과 시각을 바꾸지 않는 한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21세기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창의성 있는 인간을 기르기 위한 교육개혁은 공허한 일이 될 수 밖에 없다. 이제 학교 교육개혁은 다양한 아이들의 소질과 적성을 최대한 신장시킬 수 있도록 다양성과 창의성이 존중되는 ‘수요자 중심의 교육’, 즉 학습자가 개방적이고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적성과 소질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학습과제를 제시하고 이를 탐구할 수 있는 교육이 실시되어야 한다.

앞으로는 입시라는 굴레를 어느 정도 벗음으로써 우리가 노력하기에 따라서 학생들의 요구와 관심에 맞는 보다 다양한 교육적 시도가 가능해 질 것으로 본다. 교실을 떠난 다양한 삶의 현상이 교육의 장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 다양한 직업을 가진 지역 인사가 일일 교사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학생들의 취미와 적성에 맞는 다양하고 건전한 서클 활동과 체험을 통해 공동체 의식을 함양할 수 있는 사회 봉사 활동도 장려되고 활성화될 것이다.

이러한 창의적이고 다양한 교육적 시도가 특히 일선의 선생님들에게는 한편으로는 강요받고, 한편으로는 안주해 온 “입시 안내자”가 아닌 전문성과 창의성을 가진, 존경받는 인생의 안내자로서 교직에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그러나 새로운 문제는 대학 입학에 있어서 무시험 전형의 실시로 학교교육의 기본적인 틀과 조건은 바뀌었으나, 그 틀을 어떠한 내용으로 짜느냐 하는 점이다. 이제 학교장 추천 등에 대비한 종합적인 학생 평가 기준을 광범위한 공론 과정을 거쳐서 합리적으로 설정함과 동시에, 보다 본질적으로는 학교교육을 내실화하고 바람직한 학교 문화를 형성·정착시키는 과제가 우리 앞에 주어진 것이다.

## 2) 인간다운 인간을 기르는 교육

다양성과 창의성이 존중되는 학교 풍토에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가장 큰 덕목중의 하나는 아마도 인간의 가치를 가장 중시하는 것일 것이다. 이제는 교육의 외형적 성장이나 규모의 확장보다는 수월성과 효율성, 그리고 인간성 등의 질적 지표를 중시하는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 중에서도 인간성 중심의 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철저히 실행하려는 의지를 보이는 교육만이 21세기에 신뢰받을 수 있게 된다.

오늘날 청소년들은 매우 심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를테면, 잘 먹어서 허우대는 크지만 조금만 힘든 일에도 허덕거리는 ‘심체적’ 심약자가 있는가 하면, 세상물정을 몰라 혼자 잘났다고 으쓱대지만 조금만 슬프거나 아프거나 무섭거나 하면 대성통곡에 대경실색에 앞뒤를 가리지 못하는 ‘정서적’ 심약자가 있으며, 공부할 때 조금만 문제가 어려우면 으레 답을 남에게 구하거나 ‘답란’을 뒤져보는 ‘지적’ 심약자가 있다는 것이다. 인성계발이란 근본적으로 어떤 행동을 무엇무엇 ‘때문에’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무엇‘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는 용기를 길러주는 것을 말한다. 약은 맛이 있기 때문에 먹는 것이 아니라 맛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먹는 인내와 적이 무섭지 않으니 싸우는 것이 아니라 무섭지만 싸우는 기백을 길러주어야 한다(정범모, 1995).

이처럼 우리교육은 인성과 창의성 교육의 실현을 가로막고 있었던 대학입시제도로 인하여 초·중등학교의 학습방법을 혁신적으로 개혁하지 못하였다. 이제는 학생활동 중심의 토론·실험·발표·조사 연구 등 다양한 수업방법과 좋은 인성을 기르기 위한 특별과정을 도입함으로써 학생이 자기주도적으로 학습 및 생활능력을 함양할 수 있도록 변화되어야 할 것이다. 자기주도적 학습 및 생활능력의 함양이 새로운

사회가 요구하는 인간형이라면 비록 우리의 학교 상황이 아무리 어렵다 하여도 우리는 이러한 인간을 기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

또한 방과후 교육활동을 활성화하여 학생들이 자신의 소질과 적성을 발휘할 수 있는 폭넓은 기회를 제공해 주어야만 하겠다. 그 동안 고등학교에서는 방과후 교육활동 마저도 입시를 위한 교과수업으로 일관해 왔다. 그러나 이제 대학입시제도의 변화에 따라 교육부에서는 IMF체제의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1,000억원의 예산을 지원한다고 하니 단위학교는 학생들의 소질과 적성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즐거운 학교문화를 조성하고자 노력하는데 힘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그간 일선 학교가 방과후 교육 활동을 시행하면서 어려움을 겪었던 것은 강사 확보 문제였다. 그러나 지난 4월부터 일부 시·도교육청이 다양한 분야의 전문 인력을 신청 받아 이들의 인적 사항을 데이터베이스화한 뒤 일선 학교에 보내 강사 선정에 활용케 하고 있다. 제주교육청도 강사 요원을 확보하여 강사풀체를 통해 시내 초·중·고교에 채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교육부로부터 교부받은 예산을 단위학교에 지원하되 운영 실적이 우수한 학교에 차등 지원하여 방과후 교육 활동을 더욱 활성화해야 할 것이다.

### 3) 교사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

아직까지 학교에서의 공문서 처리는 교사의 전문성 제고에 방해 요인이 되고 있다. 현재 시범 운영 중인 교무업무 지원시스템과 교육정보 유통시스템을 모든 단위학교에 확대 실시한다고 하니 각급 학교는 학사 관련 업무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전산 처리토록 하고, 전자결재·전자계시판·전자우편 등에 의한 공문서 처리와 학교 구성원간의 정보 유통을 전산화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학교경영 업무 지원 시스

템을 개발하여 학교에서의 교원 인사관리, 물품 회계 관리, 시설 관리 등 교육행정 업무를 전산 처리 할 수 있도록 교육지원 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또한 교원연수는 연수기관에서 학년초에 일반·직무 연수 일정을 일괄 수립하여 통보함으로써 일선 학교의 산발적인 업무 처리를 예방하고, 교육청이 주관하는 직무 관련 외부 회의 참가는 가급적 정례화하여 개최토록 하고, 교육청에서 연중 요구하는 현황 자료를 관련 부서에서 함께 검토한 후 필요 서식 등을 미리 작성 배부함으로써 반복 및 중복적 업무를 대폭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처럼 교무업무 처리과정을 전산화할 때 교사는 자신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으며, 교과 또는 특활 영역별로 같은 관심을 가진 교사팀이 구성되어 공동 관심사를 연구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 아울러 교사들의 연구기회를 최대화할 수 있도록 시도 교육청이 적극적으로 지원할 때 새로운 학교 문화가 창조될 것이다.

한편 학교 청소년들의 건강한 인성을 계발하기 위한 상담교사의 확보는 단위학교가 추구해야 할 또 하나의 사업이다. 그간 비행청소년들을 돕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끊임 없이 있어왔으나 제대로 결실을 맺지 못한 이유는 직접 청소년들을 접촉하는 현장 교사들의 전문적 자질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장교사들은 누구나 전문 상담자로서의 자질을 갖추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대학이나 지역의 상담전문기관과 연계하여 일정한 시간의 연수를 받도록 행·재정적 지원을 해야 할 것이다.

#### 4) 학교교육의 자율성과 합리성

앞으로 단위학교는 자율성을 확보하고 학교실정에 맞는 교육활동을

전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와 분위기를 조성하여 점차 이를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정부나 시·도교육청은 단위학교와 교사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해 주되 그에 따른 책임을 묻는 제도적 장치를 동시에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차원에서 다양한 평가제도를 도입하여 시·도 교육청 평가와 학교 평가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과거 한국 교육은 외형적 양적 성장을 목표로 교육확대를 추진해왔다. 그러나 효율성의 고려 없이 이루어진 규모 확대 전략이 과거에는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두었고 국제 사회의 주목을 끌었던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IMF관리 체제 이후 우리 교육의 질적 실상이 드러나면서 비합리적 학교경영의 한계가 드러나게 되었다. 우리 교육의 결과가 실질보다는 허상이 많았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제는 신중하고 선별적인 다각화가 요구되고 교육 활동 영역이 국제화돼 감에 따라 국제 경쟁력과 역량 제고를 위해 우수한 국내·외 인력을 스카우트해야 할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제주의 경우 육지 또는 외국의 전문가가 별 불편 없이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외국인과 국내 인력으로 구성된 다문화팀(multicultural team)이 팀워크를 발휘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제주교육이 급격한 국제환경 변화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는 위기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혁신과 변화 관리 역량을 갖추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변신의 노력이 필요하며, 이러한 변화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조직 역량과 뚜렷한 목표의식을 가진 리더를 양성하여야 할 것이다.

##### 5) 교육운영에 대한 과학적인 검증

최근 우리 교육현장에는 교장초빙제가 도입되면서 투명한 학교 경

영 체제를 구축하는 경향이 있다. 인간육성을 위한 경영 구조를 가진 학교는 다른 어떠한 기관보다도 경영 책임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 교육경영 구조는 보다 순수 명료해져야 하고 가치 창출을 위한 합리적 경영 기능이 있어야 할 것이다.

새로운 교육제도가 정착하기 위해서는 제도의 타당성을 막연한 직감으로 표현하지 않고 과학적 수치로 표시해야 한다. 예를 들면 대학의 무시험 전형이 사교육비 경감에 얼마나 이바지 할 것인가. 이를 액수로 표시한다면 얼마이며, 이 평가치의 신뢰도는 어느 정도인가. 현재 대학 입시를 위한 사교육비가 연간 10조여원에 이른다는 수치가 나와 있기는 하나 그것이 얼마나 믿을 만한 값인지. 오차의 범위가 얼마인지가 나타나야 한다. 또한 '무시험 고교장 추천제'가 고교교육 정상화에 얼마나 이바지할 것이며, 우리 나라의 현실에서 이를 올바르게 실행할 수 있는가. 주관이 개입하게 마련인 선발 절차가 얼마나 신뢰성이 있을 것인가. 모든 고등학교의 추천을 똑같이 믿을 수 있는 것인가. 전국 2천여개 고등학교가 지닌 학교간 차이는 얼마나 되는가. 그 차이의 폭에 대한 신뢰도는 얼마나 큰가.

이러한 의문에 대해 무엇보다도 믿을 수 있는 과학적 수치를 얻기 위해서는 시간과 노력을 들여 필요한 데이터를 충분히 축적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새로운 정책 방안들의 장점과 단점, 효과와 부작용들이 자연스럽게 드러나고 분석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얻어진 정보들은 널리 공개돼 많은 사람이 공유하고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정부는 거시적 차원에서 이러한 노력이 이루어져야 하고, 시·도 교육청은 이러한 자료와 정보의 축적·분석·공개·활용을 보다 구체화하여 정보화 시대에 걸맞게 과학적 교육경영을 해야 할 것이다.

## 5. 결 론

지금까지 IMF 시대에 대비한 제주교육의 방향을 다양성과 창의성이 존중되는 교육, 인간다운 인간을 위한 교육, 교사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으로 학생과 교사의 측면에서 논의하였고, 이를 극대화하기 위한 지원 차원에서 학교교육의 자율성과 합리성, 교육운영에 대한 과학적인 검증 등을 제시하였다. 이제 학교 단위의 교육 개혁이 “열린교육” 운동의 차원에서 점차 확산되고 있다. 이런 운동이 교과 교육에 그치지 않고 생활 지도 및 인성 교육으로 확대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사와 교육 행정가들이 마음을 열어야 하고 학생들은 자유롭게 자신을 나타낼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새롭고 활력 있는 학교 문화를 창조하기 위해서는 학부모가 이를 올바르게 이해해야 하고, 일선의 교장 선생님을 비롯한 교사들이 꾸준히 연구하고 노력해야 하며, 교육행정 기관이 이를 위한 여건을 조성해 주어야 한다. 아울러 교육관련 구성원은 상호간에 자발적이고, 공개적이며, 지속적인 대화와 토론이 이루어져야 한다. 어느 한 쪽만이 일방적으로 주도하고 강제하는 방식으로는 올바른 학교 문화를 창조하고 정착시키기 어렵다.

새로운 학교 문화의 정착을 위해 우선 교육부는 앞으로도 방과후 교육 활동을 지속적으로 권장·지원할 것이며, 교실 수업의 혁신을 위해 선생님들은 교과 연구 활동을 더욱 활성화해야 할 것이다. 또한 새로이 도입된 학교 운영 위원회의 위상을 높여 자율적인 학교 경영 풍토를 조성해 나가야 할 것이다.

바로 이러한 학교교육과 이를 통한 새로운 학교 문화의 형성이 다가오는 21세기의 “지식기반 사회”가 요구하는 창의적인 인간, 자기 주도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인간, 자신과 함께 다른 사람을 생각하

는 성숙된 공동체 의식을 가진 인간을 기르는 길이다. 이렇게 길러진 인력이 우리 나라가 냉엄한 국제경쟁력 하에서 세계 역사의 발전을 선도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이런 점을 고려해 볼 때, 초·중등학교는 학생들의 창의력과 인성을 키울 수 있는, 다양한 체험적 교육 활동을 비롯해 수업 및 평가 방법 개선 방안 등을 자체적으로 마련해야 할 것이다. IMF를 극복하고 교육의 정상화를 위한 교육의 방향을 어떻게 수용하고 구체화하는지는 각급 학교 또는 지역단위 교육청이 능동적, 주체적으로 결정해야 할 것이다.

#### 〈참 고 문 헌〉

- 신현암(1998). “IMF 시대 생활의 변화”, 「시조」제9호, 시조사
- 심상필(1998). “IMF 시대의 대학경영과 운영체제”, 「대학교육」3호 통권 92호, 한국대학교육협의회
- 임동권(1998). “최근의 학교교육개혁 동향”, 「교육개발」9호 통권 115호, 한국교육개발원
- 정범모(1995). 「인간의 자아실현」, 나남출판사
- 포스코신문(1998. 9). 「글로벌 스탠다드 기업의 조건」, 포스코 신문